

2016 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생명나무

메시지 17

부활 생명 안에서 살고,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성경: 고후 1:8-9, 롬 8:28-29, 빌 3:10-11, 고후 4:16, 요일 1:3, 롬 5:17, 21

- I. 부활 생명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너울이 벗겨진 진리를 보아야 한다.**
- A.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셨다—행 13:33, 롬 8:29 하.
 - B.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 즉 그분의 재생산인 교회의 산출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다—벧전 1:3, 요 12:24, 고전 10:17.
 - C.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 D. 주님의 부활의 이 주요 항목들, 즉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생명 주시는 영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하나님의 경륜도 없을 것이다—참고: 골 1:18, 고전 12:12, 엡 4:4.
-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 A.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다—벧전 1:3, 엡 2:6, 참고: 창 2:21-24.
 - B.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빌 3:10-11.
 - 1. 우리 모두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사는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주님께 의해 제자가 되어야 한다—참고 요 3:8.
 - 2.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영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아니다—고전 3:12.
- III. 부활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고후 1:8-9.**
- A.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종결 시키고 끝내는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신다—고후 1:9.
 - B.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은 사람 안에 주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주입된다—고후 4:16.
 - 1.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외적으로 알리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보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주입하고 넣는 일을 하고 계신다—갈 4:19.
 - 2.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신다—고후 4:7-12, 살전 3:3.
 - 3. 부활 안에서 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조성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롬 8:28-29, 히 12:10, 렘 48:11.

4.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하여, 우주에서 고난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으로 주입되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후 4:16.
 5.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시도록, 지속적인 새롭게 됨이 매일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겔 36:26, 고후 5:17, 계 21:2.
- C. 부활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을 신선하게 공급 받음으로 보양을 받아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후 4:16.
1.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부활의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게 하는 것이다—골 2:19, 롬 8:10, 6, 11.
 2.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새롭게 하는 역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드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새롭게 더해지시도록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한다—빌 2:13, 3:10-11.
 - a.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과 우리의 연합된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되고 있다—고후 4:10, 딤후 3:5, 엡 4:23, 5:26.
 - b.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한다—마 13:43, 잠 4:18.
 - c.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 받기를 구함으로써 새로움의 원칙에 따라 주님의 상에 가야 한다—마 26:29, 5:23-24, 18:21-22, 35.
 3.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매일의 죽음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고후 4:10-12.

IV. 생명의 교통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의 실재이다.

- A. 교통은 신성한 생명을 받고 소유한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요일 1:3, 참고: 계 22:1.
- B. 우리는 신성한 영, 즉 성령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후 13:14 딤후 4:22.
1.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우리와 삼일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한다—요일 1:3, 6.
 2. 바로 이 교통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온 존재와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참여한다. 즉 우리는 그 영의 교통에 의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누린다—고후 13:14.
- C.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빌 2:1, 계 1:10.
1.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 서로간의 교통을 말한다—요일 1:2-3, 7.
 2. 우리가 서로 참된 수평적인 교통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참된 교통은 우리의 영에 의한 것이다—참고: 엡 4:29-30, 고후 6:6.
- D. 한 신성한 교통은 교직된 교통이다. 즉 수평적인 교통이 수직적인 교통과 교직된다.
1. 사도들의 초기의 체험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후, 그들은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했다—요일 1:2-3, 참고; 행 2:42.
 2. 우리가 갖는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주님과과의 수직적인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
 3.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참고: 요일 1:7, 9.
 4. 주님과과의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료 믿는 이들과의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 E. 교통은 개인적 이익을 제쳐놓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신성한 교통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그리고 삼일 하나님과 연결 되는것이다—요일 1:3.
- F.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이다.
 1.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지신다.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오신다—참고: 계 22:1.
 2. 이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직 되신다. 이 교직됨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참고: 레 2:4-5, 고전 10:17.
 3. 신성한 교통은 우리의 성장과 생명 안에서의 변화를 위해 신성한 조성을 우리의 영적 존재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우리를 형태 짓고 심지어 우리를 재조성한다.
 4.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섞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조화시키고 함께 한 몸안으로 연합시킨다—고전 12:24-25.
- V.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모든 것 위에 은혜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롬 5:17, 21.
 - A.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넘치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며, 의의 선물은 하나님이 법리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다.
 - B.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 같고, 왕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막 4:26, 요일 3:9.
 - C.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로마서 6 장 부터 16 장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열쇠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우리는 이 장들에서 제시된 모든 것들 안에 있을 것이다.
 - D. 체험에 있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본이시다—마 8:9.
 2. 바울은 그의 생활과 사역에서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사람의 예이다—고후 2:12-14.
 3.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모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한정받고 제한받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겔 1:22, 26, 47:1-5, 고후 2:10.
 4. 로마서 12 장과 13 장에 있는 몸의 생활을 사는 것에 대한 각 항목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롬 12:1-5.
 5.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들을 지닌 생명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롬 12: 9-12, 15, 18.
 - E.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롬 5:21.
 1. *Into* (로마서 5 장 21 절에 있는 ‘이르게’)는 목적지를 말하며 또한 ‘무엇이 되다’ 혹은 ‘무엇이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생명의 총체, 즉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이다—참고: 요 4:14 하, 계 22:1-2.
 2.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결과와 목표는 새 예루살렘, 즉 신성이 인성과 연결되고 연합된 우주적인 합병체이다.